

<2022년 4월 24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

[시대 성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네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여 위해 주며 살아 주었나니,
그러므로 그 심정을 알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

그는 너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날에 도우셨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지 않게 해 주셨고,
은혜의 날에 은혜를 주셨고, 사랑할 때에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날에 구원해 주셨고, 가난한 때에 도와 부하게도 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과 너희를 구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이번 주일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라.” 입니다.

-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지 말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해당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난날에 그러했듯이 현재도
전지전능하신 만큼 때를 따라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지구 세상〉을 창조해 주시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구원시켜 주시며,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이 크고도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받기만 하고 살게 됩니다.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단 하나’도 평생 얻을 수 없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 ‘작게’ 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봐야,
깨달아지고 생각납니다.

〈죽음에서 살려 주신 것〉도 생각하고 알고자 해야,
‘수십 번씩 살려 주신 것’이 기억나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장했으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산 자〉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백분의 일’이라도 행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욱 ‘보람’을 느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힘들지 않고, 기쁘고 힘이 나서 하게 됩니다.
-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내가 주께 복음과 은혜로 빚진 자다.
주께 복음을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깨닫고,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남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로 ‘수많은 생명’을 전도했습니다.
- 우리도 <이 시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행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산 자들’입니다.

이제 <시대>를 따라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며,
‘기쁨으로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고, 열심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빛〉을 갚아라.

네가 〈각종 은혜〉를 받은 대로 나 여호와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나의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 또한, 〈복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받게 되었으니,
〈복음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구〉보다도 더 큼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받은 대로 감격하며,
〈은혜를 갚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은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쓰고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이를 모르고,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은혜’를 갚고 끝나면 안 됩니다.

- <은혜를 갚을 때>를 놓치면,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해야 됩니다.

-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 인생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살면 한계 이상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맡기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소출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는 ‘포도원’을 맡기지 않고, ‘다른 자’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음으로 불만 불평하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이상세계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도 받다가 안 받아보면,
그제야 ‘그 은혜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 때>입니다.

- <은혜 갚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자기에게 ‘은혜’를 갚아 주면,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은혜를 갚으면, 그리도 기뻐하십니다.

-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 갚는 삶’을 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들이 <은혜 베푸는 것>을 아는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시고 감격해 하시며,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율컬하십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리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 드리는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드리고,

어려울 때 <그 동안 받은 은혜>를 갚아 드리며 열심히 하면,
그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시겠습니까.

-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므로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루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게 하여 구원시켜 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 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 <이 시대 복음의 사명자>는 구원을 받고 감사해서
1년 동안 ‘만 명’ 에게 시대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삶’ 을 사니,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 또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 주신 사연들>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이 보고 자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증거하게 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 〈헌금을 하면서 은혜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을 증거〉하여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 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갚게 됩니다.
-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행하며 ‘은혜’를 갚아 드려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기뻐하십니다.
- 성리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각종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도 정성껏 마련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삼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 또 성리사 모두 〈월명동〉을 몸부림쳐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 년’이 가도록 쓰시며,

우리들과 ‘시대의 역사’를 펴 나가게 해 드렸습니다.

-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이
실상은 ‘더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구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지만
<나 여호와에게 큰 은혜를 받는 삶>도,
<그 은혜를 갚는 삶>도 모르고 살아간다.

<나 여호와를 믿고 사는 자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
<은혜를 갚는 생활>을 잘 모르고, 잘 안 하고 산다.

너희가 지난날 <나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산 것들>로 인해

‘이상세계’를 이루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살지 않느냐.

<은혜를 갚으며 살라는 이유>는

<깊고 깊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바로 ‘은혜를 갚는 삶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고, ‘각종 것’을 최고로 만들어 주었다.

결국 <너희>도 일생 동안 쓰고,

<후손들>도 귀하게 쓰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또 <나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삶>을 살라고

‘너희를 위해 해 주는 나 여호와의 말’을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각종 은혜>을 받기만 하고 말면,

마치 허공에 바람이 지나가듯,

<그 은혜>가 ‘육의 삶 속’에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공적이 되어

‘육’도 잘되고 형통하고, ‘영’도 영원토록 받고 빛나게 됩니다.

- 선생님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인데

‘너무도 부족하게 한 것이 많았음’을 깨닫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전하게 행해 봐야,

그제야 <지난날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느니라.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를 진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갚는 삶>은 오직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삶’입니다.

-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천 년 역사>에 참여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매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십 년간 베푸신 은혜>는
‘수천 가지’도 넘습니다.

<생각>도 다 안 날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 먼저’ 은혜를 갚으며 살면 됩니다.
-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신앙>이 죽지 않고 굳건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다. 사명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 지난날 <어려운 처지>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토록 가는 은혜’입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았는데,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자기 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을 귀하고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 <영원토록 사는 영>이 ‘그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자기 영>을 자기가 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는 삶>을 매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